

다니엘서 - 제48번

예언의 베일을 벗기다: 성경 해석에서 하박국의 묵시와 두 돌판, 그리고 상번제의 신비가 지니는 의의

Jeff Pippenger
2024-01-12

올라이 강의 환상이 나타내는 지식의 증가는 결국 하박국의 두 판에 기록된 것이다.

그들이 재림의 때에 해당한다고 여겨 온 예언들과 함께 엮여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불확실과 초조함의 상태에 특별히 맞추어진 교훈이었으며, 지금은 그들의 이해에 어두운 것이 때가 되면 분명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예언들 가운데에는 하박국 2:1-4의 예언이 있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 위에 나를 세우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으로 대답할지를 보기 위하여 지켜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겨, 읽는 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라. 이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끝에는 성취되어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이를 것이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스스로 높아진 자의 영혼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아니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벌써 1842년에, 이 예언에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쓰고, 읽는 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라'고 주어진 지시는 찰스 피치에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설명하기 위한 예언 도표를 준비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 도표의 출판은 하박국을 통해 주어진 명령의 성취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때에는 같은 예언 속에 환상의 성취가 겹보기에 지체되는 시기(지체의 때)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다. 그 실망 이후에 이 성경절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보였다: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함이니, 끝에는 그것이 말할 것이며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이는 반드시 이를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The Great Controversy, 391, 392.

하박국의 두 서판은 예언적으로 두 증인이다. 성경적으로는 진리를 확증하려면 두 증인을 함께 세워야 한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게 하려 함이다. 마태복음 18:16.

하박국의 두 표(1843년과 1850년의 선구자 도표)를 서로 겹쳐 보면, 그것들은 밀러의 꿈에서 보석으로 나타났던 진리들을 확증한다. 첫째 표에 제시된 1843년의 오류는 둘째 표와 포개어 볼 때 그 이상의 지체하는 때를 확정한다. 밀러(그 역사의 상징적 파수꾼)는 자신의 역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이라 대답할지를 보기 위해 지켜보리라. 하박국 2:1.

주님은 밀러에게 그 환상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셨고, 그의 꿈속에서 그는 그 환상이 담긴 상자를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기되,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라. 하박국 2:2.

그런 다음 표는 지체 시간과 첫 실망을 보여준다.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요, 마침내 말하여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3

지식의 증가에 의해 만들어진 3단계 시험 과정(밀러의 보석들)이 이어서 제시된다.

보라, 그의 영혼이 높아져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4.

두 부류의 예배자들은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시험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다니엘서의 지혜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처녀들이며, 악인들은 교만으로 스스로 높아진 미련한 처녀들이었다. 밀러의 꿈의 끝에서 보석들은 열 처녀의 비유의 기름을 상징했는데, 그 기름이 곧 그 메시지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려는 금빛 기름을 거절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부르심이 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들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생애는 파선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20일.

말세에 밀러의 보석들이 발하는 빛은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며, 숫자 열과 빛은 모두 시험의 상징이다. 말세, 곧 밀러의 꿈의 끝으로 표상된 그대에, 하박국의 판들에 표상된 진리의 빛은 시험의 메시지를 낳는데, 이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로 나타나 있다. 그 시험 과정은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시험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열 처녀의 비유가 말세에 문자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나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던 열 처녀의 비유로 자주 인도된다. 이 비유는 특별히 이 시대에 적용되므로, 글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성취되어 왔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현재의 진리가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August 19, 1890.

열은 시험의 상징이며, 열흘이 끝났을 때 다니엘과 세 명의 의인은 바빌론의 음식을 먹던 자들보다 겉모습이 더 아름답고 살도 더 찌게 되었다. 하박국에서 믿음이 아니라 자만에

의지해 사는 자들로 묘사된 교만한 자들은 바빌론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그들은 바빌론의 딸들이 되었고, 하박국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선택한 자들의 성격을 식별하는 데 교황권의 예언적 특징이 사용된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는 포도주로 인해 범죄하며, 교만한 자라 집에 머물지 못하고, 그 욕망을 스올처럼 넓히며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민족을 자기에게 모으며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쌓아 모으느니라. 이 모든 자들이 그를 대적하여 비유를 들어 말하며, 조롱의 속담으로 이르기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어느 때까지냐? 두꺼운 진흙으로 자기에게 짐을 지우는 자여!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때에 네가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리라. 네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였으므로, 모든 백성의 남은 자들이 너를 약탈하리라. 사람의 피와 땅과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행한 폭력 때문이라. 하박국 2:4-8.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에게 가해진 시험 과정은 북방의 왕(교황권)의 성품을 갖게 된 한 부류의 예배자들을 만들어낸다. 그 북방의 왕은 또한 '많은 나라들을 약탈한' 권세다. 이세벨이 개들에게 먹힌 것처럼, 갑자기 물리게 되는 것도 바로 그 교황권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백성이 북방 땅에서 오며, 땅 끝에서 큰 나라가 일어나리라. 그들이 활과 창을 잡고, 잔혹하여 긍휼이 없으며, 그들의 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고, 그들이 말에 타고 시온의 딸아 너를 치려고 전쟁하는 자들처럼 전열을 갖추었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우리의 손이 힘이 빠지고, 괴로움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며,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이 임하였도다. 들로 나가지 말며 길로 다니지 말라. 이는 원수의 칼과 두려움이 사방에 있음이라. 내 백성의 딸아,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재에 뒹굴라. 외아들을 잃은 것같이 지극히 쓰라린 애곡으로 애통하라. 이는 약탈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덮치리라. 예레미야 6:22-26.

하박국이 구별한 두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과 바벨론의 교리를 먹고 마신 자들이다. 밀러의 꿈의 마지막 때에 처녀로 묘사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하여 이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거나, 교황권의 품성을 형성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다.

도덕적 어둠 한가운데에서 참된 빛이 빛날 때가 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선포되어,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이나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한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같은 사상을 옹호하는 것을 뜻한다. 이 표를 받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임 없이 부은 것을 마실 것이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13일.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처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사물을 거꾸로 뒤집음으로써 그들의 눈먼 취함을 드러내며, 그런 행위는 '토기장의 진흙'으로 여겨진다.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the daily"를 규정하는 것은 "the daily"에 대한 진리를 뒤집어 놓는 일이다. 왜냐하면 "the daily"는 사탄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밀러가 "the daily"를 이교로

규정한 것은 하박국의 도표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죄의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 "제거된" 것이 이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 준 데살로니가서의 구절을 밀러가 발견한 사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핵심 진리이다.

"나는 계속 읽었지만, 그것([the daily])이 발견된 다른 경우는 다니엘서에서밖에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성구 색인의 도움으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 '제거하다;' '그가 [the daily]를 제거할 것이다;' '[the daily]가 제거되는 때부터,' 등을 뽑아 살펴보았다. 나는 계속 읽으면서, 이 본문에 대해 아무런 빛도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 8절에 이르렀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하거니와,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가 길에서 치워질 때까지 막을 뿐이라. 그 후에 그 사악한 자가 나타나리라' 등등. 그리고 그 본문에 이르렀을 때, 오, 진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는지! 바로 그거다! 저것이 바로 [the daily]다! 자, 이제 바울이 '지금 막고 있는 자', 곧 방해하는 자로 무엇을 뜻하는가? '죄의 사람'과 '사악한 자'로는 교황주의를 말한다. 그렇다면 교황주의가 드러나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는가? 바로 이교다. 그렇다면 'the daily'는 이교를 뜻해야 한다."
—윌리엄 밀러, Second Advent Manual, 66쪽.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1853년 1월 6일.

밀러가 발견한 데살로니가서의 'the daily'의 의미가 그 본문의 핵심 진리이다. 바울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그로 인해 강한 미혹을 받게 될 자들을 지목할 때, 그는 분명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진리에 대한 증오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진리는 'the daily'가 이교 로마를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네 눈이 약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22-24.

진리를 사랑하거나 진리를 미워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중간 지대는 없다.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들에게 임하는 강한 미혹은, 최종 시험을 나타내는 밀러의 보석들의 빛을 그들이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다. 고대 이스라엘의 최종 시험은 그들의 열 번째 시험이었고, 마지막 날들에 밀러의 보석들은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밀러의 보석들을 거절한다는 상징은 "the daily"이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아드벤티즘의 세 번째 세대에서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the daily"는 이교의 사탄적 상징이다. 그 술 취한 자들은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규정하는 배도한 개신교에서 가져온 가짜 보석을 도입했다.

밀러의 보석들에 대한 이해는 그가 자라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제한되었다. 재림이 다음 예언적 사건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1798년에 교황권이 입은 치명상은 다니엘서 2장의 네 번째이자 최후의 지상 왕국을 나타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밀러는 "the daily"에 대한 이해에서도 제한을 받았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계시를 통해 특정한 연구 방법으로 인도되었고, 그 방법에서 성경과 Cruden's Concordance를 사용하고 신문을 몇 가지 읽었다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겠다는 그의 결정은 그저 그의

마음에 떠올랐을 뿐이었다.

내가 이신론자였던 열두 해 동안, 나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역사서를 읽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쳤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의 상당 부분은 내게 난해했다. 1818년인가 1819년에, 내가 방문한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는 내가 이신론자였을 때 나를 알고 내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다소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이 구절은, 저 구절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는 내가 이신론자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던 옛 구절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시간을 주면, 그 뜻을 말해 주겠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오?' '모르겠소. 그러나 말해 주겠소.'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주셨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성령께서 뜻하신 바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 믿고 성경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결심을 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런 성경 공부 방법이 떠올랐다. 그러한 구절들의 단어들을 뽑아 성경 전체에서 추적하여, 그런 방식으로 그 뜻을 밝혀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크루던의 콘코던스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과 성경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결심으로 신문을 약간 읽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아폴로스 헤일, 재림 안내서, 65.

밀러의 보석들은 단지 그의 연구 방법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로도 알려졌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믿지 않았던 한 농부의 마음에 역사하도록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예언들을 탐구하도록 이끄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택함받은 사람을 거듭 방문하여 그의 마음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어두웠던 예언들을 그의 이해에 열어 주었다. 진리의 사슬의 시작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한 고리 또 한 고리를 찾아 탐구하도록 인도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와 찬탄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그 안에서 완전한 진리의 사슬을 보았다. 그가 영감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그 말씀이 이제 그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과, 한 구절이 그의 이해에 닫혀 있을 때 말씀의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과 더불어, 가장 깊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대하였다." Early Writings, 230.

화이트 자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밀러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이는 밀러에게 보내신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분의 천사'라는 표현은 가브리엘에게 부여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천사의 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그가 하늘 궁정에서 높은 영예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가 다니엘에게 기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오직 너희 군주 미가엘[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들에 관하여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했다. 다니엘 10:21. 가브리엘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것을 그에게 지시하사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다. 요한계시록 1:1." 시대의 소망, 99.

가브리엘과 다른 천사들은 밀러의 마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줄곧 어두웠던 예언들을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 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의 기별은 단지 그의 연구 방법을 통해서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신적 계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바로 그 방법 자체도 그의 마음에 주어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가져오실 때,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신적 계시이다. 밀러는 두 가지를 모두 행했지만, 그가 "the daily"라는 주제를 이해하게 된 방식에는 반드시 신적 계시가 포함되어야 했다.

밀러는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의 성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과 성서 원어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성구 색인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둘 다 'take away'로 번역되는 'sur'과 'rum' 사이의 구별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또한 둘 다 'sanctuary'로 번역되는 'miqdash'와 'qodesh' 사이의 구별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성경에서 104번 나오는 "tamid"라는 단어의 진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보지 못했던 진리(또한 그가 보았던 진리이기도 한)는,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 "tamid"가 104번 사용되지만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히브리어 단어 "tamid"가 명사로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Tamid"는 "지속적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며, 다니엘서에서는 "the daily"로 번역된다.

그 단어가 명사로 사용된 것은 다니엘서에서만이며, 나머지 아흔아홉 번은 부사로 사용된다. 이런 이유로,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의 다른 모든 저자들이 그 단어를 아흔아홉 번이나 부사로 사용했는데 다니엘만 그 단어를 다섯 번이나 명사로 사용한 사실과 마주했을 때, 증거의 무게에 의해 다니엘의 명사적 사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니엘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은 그 단어에 'sacrifice'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리하여 명사를 부사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번역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엘렌 화잇은 자신이 "'Daily'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보충된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으며, 주께서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고 보았다고 기록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밀러는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the daily'를 이해하려고 했고, 결국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것을 이해했다. 또 그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단어를 이해하려 할 때 그는 그 단어가 사용된 모든 곳을 살펴보곤 했으며, 그 단어는 성경에서 아흔아홉 번이나 더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daily'에 대한 그의 증언은, 그가 그것을 다니엘서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계속 읽어 나갔으나, 그것[the daily]이 발견되는 다른 경우는 다니엘서밖에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밀러는 그의 연구 방법만으로도 아니라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신적 계시에 의해서도 보석들로 인도되었다.

이 때문에 그가 "the daily"에 대해 이해한 바는 옳았지만 제한적이었다. 그는 다니엘서에서 "the daily"가 다섯 번 언급되는데, 그중 "the daily"가 "taken away"된다고 말하는 세 번 가운데 한 번은 나머지 두 번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 번은 "the daily"가 히브리어 "rum"과 함께 쓰이고, 다른 두 번은 히브리어

"sur"과 함께 쓰인다. 두 단어 모두 take away로 번역되지만, 다니엘 8장 11절에서 "rum"은 "들어 올리고 높다"를 뜻하고,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서는 "sur"은 "제거하다"를 뜻한다.

바빌론의 식단을 먹고 마시는 신학자들은, 무언가를 제거하든 무언가를 들어 올리든 둘 다 일종의 제거를 나타내므로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the daily'가 'taken away'된 세 번 모두가 항상 제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이 단어 선택에 부주의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는 세 경우 모두에서 다니엘이 'sur'라는 단어를 썼어야 했다고 가르친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the daily'가 'taken away'될 때마다 그는 매번 같은 뜻을 의도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8장 11절부터 14절에서 둘 다 '성소'로 번역되는 'miqdash'와 'qodesh'라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한다. 그 네 절에서 '성소'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킨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다시 그 추론에 따르면, 다니엘은 그 세 번의 언급에서 단순히 'qodesh'만을 사용했어야 했고, 11절에서는 'miqdash'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밀러는 그 단어들 사이의 구별을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알아본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어떤 구별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단어들 사이의 구별을 인식하지 못했던 밀러는 현대 신학자들과는 정반대의 이해에 도달했다.

실상 다니엘은 히브리어에 능통했으며, 그들 사회에서 매우 총명하다고 인정받던 바빌론의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열 배나 더 지혜롭다고 평가된, 대단히 신중한 저자였다. 히브리어의 올바른 용법과 그 특정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정확히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누가 알았다면,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도록 의도된 것이었고,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sanctuary' 또는 'take away'로 번역되는 단어들에 대한 다니엘의 독특한 사용을 인정할 때, 그것들은 'the daily'에 대한 밀러의 이해를 뒷받침한다. 이 이해는 바울이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강한 미혹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바로 그 구절에서 밀러가 인정한 것이다.

진리를 미워하고 강한 미혹을 일으키는 거짓을 믿는 자들은, 두 부류로 묘사되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로도 표현된다. 한 부류는 학식 있는 지도층이고, 다른 부류는 학식이 없는 평신도로서 학식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만 들을 뿐이다. 그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죽음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박국 2장에서 그들의 영혼이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며,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들이다. 그들은 밀러의 꿈의 기초적 진리들을 거절하는 자들인데, 그 진리들은 끝에 가서 열 배 더 밝게 빛나며(현대 이스라엘을 위한 열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을 나타냄), 이는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열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으로 예표된 바와 같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격노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인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기업에서 끊어 버리며,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주께서 권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땅의 주민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고, 주께서 대면하여 나타나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만일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처럼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셨다 하리이다. 이제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되, 결단코 죄 있는 자를 무죄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들의 죄악을 삼사 대까지 자녀에게 벌하시는 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구하오니, 주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주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그러나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찬탄하리라.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이제까지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격노하게 한 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속에 다른 심령이 있어 온전히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니, 그의 자손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민수기 14:11-24.